

먹거리·볼거리·체험거리... '관광+쇼핑' 시장으로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된 화순고인돌전통시장(화순전통시장)이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선진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장날(3일·8일)에만 개장되어 월 6회 장이 열리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월 15회의 장을 열며, 궁극적으로는 매일 시장으로서 상설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2일 오는 2017년까지 총 18억원(국비 9억원·군비 9억원)을 투입해 특화된 먹거리와 상품개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이 몰리는 전통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1964년 현 시장길 44번지로 이전, 반세기 역사를 가진 화순전통시장을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 화순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해 소비자에게 문화와 재미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장복수·이하 육성사업단)은 특화상품과 스토리텔링, 대표먹거리를 개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물,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상설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난해 1단계인 상설화 준비단계를 지나 올해 2단계 상설화 확산단계에 있다.

육성사업단은 지난해 시장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화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힐링축제와 국화축제 기간 중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중심으로 프리마켓 행사를 열고, 동시에 주전부리와 문화예술 공연이 함께하는 야시장을 시범운영해 전통시장 상설화를 가시화하는 성과를 냈다.

또 시장기반 조성과 상인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시장기반 조사를 실시하고 상인 역량교육을 실시했으며 화순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블랙푸드와 힐링 이미지를 살린 까망전골, 쌍화탕수육 등 8종의 먹거리 메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내년까지 상설화 박차

문화·관광·역사 접목 화순만의 특성 발굴

18억 들여 콘텐츠 개발... 29일 야시장 개장

지역특산물 활용 까망전골 등 메뉴로 차별화

뉴 개발사업도 추진하였다.

특히 2단계 상설화 확산단계에 들어선 올해는 야시장을 개장해 상설화에 한걸음 다가간다. 오는 29일부터 12월까지 매주 금·토요일(오후 6시~밤 10시)에 시장 마트동 중앙광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한다.

야시장은 20~40대의 젊은 고객의 유치를 목표로 20개의 먹거리 부스와 9개의 농특산물 판매 부스 및 20개의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방문하는 고객의 오감 만족을 위해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먹거리 부스에서는 화순의 약초와 파프리카 등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식품 메뉴로 구성하여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매일 낮째 주 토요일 주말시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화순군과 상인회에서는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인돌 자원과 연계하여 화순전통시장을 고인돌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어 내년 상설시장 개장을 목표로 복합센터(상설동 건립) 및 주차장 건립 등 상설시장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구충곤 군수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등의 유통환경 변화로 갈수록 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화순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명품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충곤은 "새로 이름을 가진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 상설화돼 명품시장으로 거듭나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구충곤 화순군수가 오는 29일 야시장을 개설할 예정인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화순군청 제공>

전통시장 빈 점포에 문화·체험공간 '청년몰' 만든다

중기청, 17곳 조성... 1곳당 15억 지원

지역 상권 랜드마크 조성 관광자원화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쇼핑·문화·체험공간인 '청년몰' 17곳을 만든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몰은 39세 이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들어서 있고, 고객을 위한 문화·휴게 공간 등을 물(mall) 형태로 갖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일컫는다.

그간 전통시장 상인 고령화로 미래 고객인 청년층이 시장을 잘 찾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쇼핑·문화·놀이 가 어우러진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

중기청은 앞으로 청년몰 1곳당 최대 15억원(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을 들여 육성 사업에 나선다.

창업 교육과 입점 등 청년상인에 충분한 사업기간을 주기 위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가 높아져 청년 상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가 점포를 매입할 경우 매입 비용을 현물출자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창의적 청년상인을 키우기 위해 세무·회계 등 창업 실무부터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청년 상인 CEO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태리어 지원과 창업 후

임차료 지원, 청년상인 전용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해 공동 이익 창출과 지속적인 수익모델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블로그, 프리마켓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도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쇼핑과 문화, 젊은 감각을 융합한 콘셉트를 통해 청년몰을 지역 상권의 랜드마크로 키우고 주변 야시장이나 게스트하우스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창업 이야기



근무경계 없애고 협업시스템 전환

요즘은 2차 손님이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수록 깊어지는 불경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최근 들어 바뀐 고용 또는 노동 관련 법규로 인해서 수익률이 저하된 외식업계의 요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인건비 절감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의 고용형태가 직원들의 보직 전문성을 강조하여 주방이면 주방, 홀이면 홀 등 근무경계가 뚜렷한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근무의 경계 지점을 없애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30평의 공간에서 일평균 매출이 150만원이지만 근무인력은 본인을 포함하여 3명으로 꾸려가고 있다. 메뉴나 업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매출 150만원의 매출이 나오는 외식업소의 경우 직원들의 숫자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평균 5~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고용 가성비가 높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외식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1인당 하루 매출 소화능력이 평균 25~30만원대를 오가는 외식업계의 현실에서 1인당 50만 원대의 매출 소화능력을 보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도대체 A씨는 어떻게 근무인력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을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A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분석해 보았더니 직원 1인당 고용 가성비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개개인의 주력 보직은 존재하되 고객의 상황에 따라 협업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주방이 바쁘면 홀에서 주방에 들어가 지원하고 홀이 바쁘면 주방에서 나와 홀을 지원하는 구조다.

두 번째는 메뉴의 단순화다. 구이전문점의 특성상 고기류의 품질에 집중하고 요리가 필요한 추가적인 메뉴를 없애서 간결하게 조리 가능한 단순메뉴들만 배치했다.

세 번째는 가시성이 좋은 홀과 주방의 배치와 구성을 들 수 있다. 홀에 있던 주방에 있던 손님이 오가는 모습과 추가 주문하는 손님의 손짓이 다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집객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주류냉장고나 반찬냉장고 등의 위치는 고객서비스 동선을 최대한 살리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네 번째는 그릇류의 단순화다. 가벼운 소재의 그릇류를 주로 사용하고 그릇의 규격도 다양화보다는 기능하면 단순화시켜서 동일한 형태나 크기를 유지하여 테이블 정리를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는 소수 정예화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인상을 꾀을 수 있다. 1인 다역을 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더 인상하여 지급해서 직원들의 멀티플레이형 근무환경이 주는 피로감을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풀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아닌 가족 같은 개념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요즘은 걱정스러운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불경기 상황이다. 고객을 유입시키는 다양한 전략들도 필요한 시기이지만 매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교원 L&C 광주센터 북구 신안동 광주역앞 교원빌딩(구 고려시멘트) 3층 웰스정수기, 비데, 청정기, 전기렌지, 연수기 판매 및 렌탈상담전문 화장품, 효소홍삼 취급/메니저 수시 모집 ☎010)2681-6067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번지(법원빌딩) 하모(침정어)사바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국수나무 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할. ☎062)224-7687, 010-2611-7687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붕장어, 사바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2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평등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 손님 환영 대표 오순옥 ☎062)266-720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6 동부교육청앞빌로 인성상당,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혜택을 드리는기업(주)JK상조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4 (세진빌딩 704호) 직영장례식장 운영(무등장례식장, 만평장례식장, 해피부장례식장) 대표 이성희 ☎010-8542-3366	해뜨는 집 동구 대의동 78-3번지 전일빌딩 뒤 고동어 구이 정식, 목은지 등 뼈찌 목은지 고동어 말미, 고추장 양념구이 (아간) 각종 술안주 일체 대표 박현희 ☎062)228-9233
태양식육식당 북구 신안동 전대차과 대학병원 건너편 다슬기 해장국·다슬기 오리 백숙 다슬기담백숙·다슬기 수제미 전문 대표 이정숙 ☎062)511-5292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1	다미울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건너편 천연염색의류, 인태리어 소품, 의상 지수 수선 한복, 마크, 한우 예쁜 자수로 리폼 26년 경력 의류 자수 대표 고진선 ☎010-8261-5205	광주간호학원 동구 금남로 1가 19-1 천하빌딩 4층, 전원취업 알선 국비 간호 조무사 모집 일반주·야간 대표 윤상현 ☎062)222-5353	대풍쌀농산 북구 서빙로 39번길9-2 (중흥동 평화맨션 입구) 일반미·찰쌀·보리쌀·현미·서리태 팔·들깨·녹두·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원 ☎062)267-0101, 010-3609-711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신신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한마음축산 북구 두암동 라인동산@앞 최고급 한우를 최소가격으로 판매 등갈비, 포천식 왕갈비, LA갈비 선물용 포장가능 대표 김진선 ☎062)251-8892	미래나눔공인중개사 동구 광산동 56번지 2층~3층 수익형 빌딩, 프랜차이즈, 토지, 상가 매매 및 임대 대표 주승일 ☎062)227-2249, 010-3605-5571	자연꽃장제장한정식(문화전당점) 동구 대의동 33번지 보리굴비정식, 버섯불고기정식, 자연꽃 한상정식 비즈니스, 상견례 각종단체모임 대표 임승연 ☎062)225-711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 (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침, 수축침, 이침) ☎062)432-1324